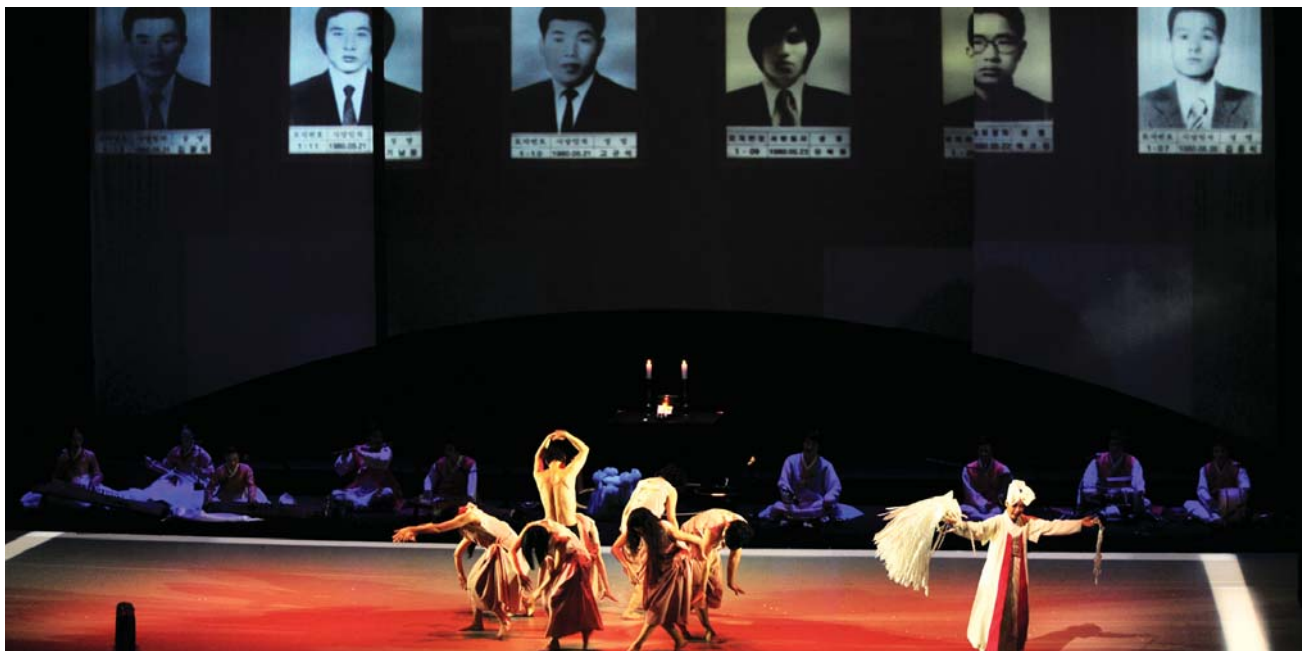


2011 문화계 결산

② 공연



광주브랜드 공연인 '자스민 광주'의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쉬웠던 '오! 페스티벌 광주'

올해 광주 공연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단연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오! 페스티벌 광주'였다. '오!페스티벌 광주'는 단발적으로 열렸던 정음성악제음악제,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광주합창페스티벌 등을 통합해 치른 행사다.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촉박한 제작 기간 등에 쫓긴 점은 앞으로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비히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 아름다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으며 시립무용단은 중국에서 '명성황후'를 공연했다.

'자스민 광주' 에딘버러 참가, 국내·외 평가 달라  
문예회관 20주년 공연... 무용·연극 전국대회 수상

특히 '페스티벌'이라는 형식이 수익 등에 신경쓰지 않고 문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임에도 국립무용단 등 일부 참가팀의 작품은 너무 식상해 페스티벌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그레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에딘버러 현지에서는 프린지 공식 평가기관으로부터 별 다섯개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지역 예술인들의 남보도 이어졌다. 광주로알발레단은 제21회 전국무용제에서 '티핑 포인트 37.5'로 대통령상을 포함, 남녀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극단 터(대표 정순기)는 전국연극제에서 '막타고 노을보다'로 금상, 남녀연기상, 희곡상을 받았다.

3월에는 짧은 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자기가 빛을 만나 예술이 되다

김진석 개인전, 22~31일 나인갤러리

굳이, 발터 벤야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대는 수 많은 이미지로 둘러 싸여있다. 디지털 발달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미지가 생산되고 사라지고 있다. 김진석은 이런 이미지의 과잉에 집중하고 있는 작가다.

휴과 물이 섞여 도자기가 되듯, 김씨의 손을 거친 이미지들은 원형의 모습을 벗고 형태를 알 수 없는 흑백의 이미지로 재탄생된다. 이들 이미지는 전사지를 이용해 도자기 잔통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휴'

메리 크리스마스~ 올핸 국악과 함께해요

퓨전그룹 '아이리아' 송년콘서트,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퓨전 국악그룹 아이리아(총감독 김혜경)가 겨울 송년콘서트 '얼썬구, 메리크리스마스 겨울에 듣는 영화음악 '겨울연가'를 펼친다. 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 별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는 소년, '징글벨' 등 캐롤 모음곡과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삽입곡 'Love is all around',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곡 'Merry Christmas Mr. Lowrance' 등도 연주한다.

광주국제교류센터 24일 'Adios 2011' 한해 마무리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해온 비영리 민간단체다. 지난 1999년 6월 설립 이후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광주지역 유일의 내외국인 공동체로서 성장해왔다.

터 설립 이래 12년만의 처음으로 선보이는 센터 직원들의 문화 공연도 결별된다. 참석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나 와인 등을 가지고 오는 파티(Potluck Party)로 진행되며, 한국 음식과 외국인들이 마련한 이색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동짓날 즐기는 민속놀이  
담양 대담미술관

"동짓날 시골 미술관에서 흥겨운 우리 문화를 즐겨보세요" 담양 대담미술관은 오는 22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향교리 예술인 마을파다'의 오픈 행사로 '동지족 파티'를 연다.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글로벌 우수브랜드  
우리생선 名家 청어당 안동간고등어가  
호남총판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매를 이어오는 우리 맛 지킴이 안동간고등어가 12월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SMEWG-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orking Group) 총회에서 '지역 브랜드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생선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로 이루어진 영광임을 잘 알기에 이제 고객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12월 23일, 호남총판(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안동간고등어는 영광굴비와 더불어, 잇따른 FTA협정 체결과 외국인 수입생선의 국내 유입으로 힘든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우리바다의 국내산 고등어만을 고집합니다.

제맛이 아니면 내놓지 않는 청어당 안동간고등어로 따뜻한 정을 듬뿍 나누세요. 안동간고등어 호남총판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동간고등어 호남총판 대표 안봉한 올림

안동간고등어 호남총판 오픈기념 무료시식회  
일시- 2011년 12월 23일 11:30~14:00  
장소- 흥백식당 (대인동 예술거리 입구 맞은편)

※ 무료시식권을 소지하시고, 미리 예약하시면 순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